

다양한 사회적 경계와 흑인의 인종적 정체성: 피터 잭슨(Peter Jackson)의 복합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김 정 욱

I. 서문

인종경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정체성은 자주 이분법적으로 구획된다. 지배하는 혹은 차별받는 인종집단 모두가 공유하는 백인과 유색인종이라는 대립항 정체성 분류가 대표적이다. 인종 정체성 구획에 있어 이분법은 자주 관성적으로 활용되곤 하는데 심지어 인종 내부에 실재하는 사고방식의 차이를 주목할 때에도 예외가 아니다. 가령 대중적 정치 운동을 거부하고 흑인들로 하여금 단순직업 교육을 이수한 하층 노동자로서 경제적 향상을 달성하게 만들면서 인종질서에 위협을 최소화하는 점진적인 인종통합을 추구했던 순응적인 부커 T. 워싱턴(Booker T. Washington)과 시민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대중적 정치사회운동을 전개하면서 즉각적 인종통합을 요구했던 저항적인 듀보이스(W. E. B. Du Bois)의 구획이 그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순응적 혹은 저항적 정체성의 대별에 기초한 흑인 내부의 이분법적 분류는 지성사만이 아니라 스포츠사에서도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다. 스포츠사가들이 지적하는 바처럼 사회적 통념 속에서 그리고 학계에서도 오랫동안 한 흑인 복서는 순응적이거나 저항적인 정체성 중 하나를 가진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러한 대립항의 연원을 이루는 인물은 헤비급 복서 피터 잭슨과 잭 존슨(Jack Johnson)이었다.¹⁾ 잭슨은 백인 중간계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23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급의 생활규범을 준수하고 인종예의(racial etiquette)에 순응적인 복서로서 육체적 남성성을 과시하는 인종적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길들여진 흑인 남성의 전형을 보여줌으로써 성공적인 인종통제의 상징으로 이해되었다. 반면 1908년에 흑인 최초로 전미 헤비급 챔피언이 되는 존슨은 그가 얻은 부를 과시하고 백인 여성과 사귀는 등 적극적으로 인종위계와 인종예의에 도전하여 백인들 사이에서 ‘못된 검둥이(bad nigger)’로 지칭되었던 저항적 흑인의 전형으로 여겨졌던 것이다.²⁾ 오랜 이분법적 사고를 반영하는 능동적 잭슨과 타율적 존슨을 구획하는 분류가 인간의 주체성에 기초한 행위력(agency) 유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잭슨은 자율성을 철저히 부정당한 인종위계라는 사회구조의 희생양으로 해석된다. 마이크 마르쿠시(Mike Marqusee)가 “툼 아저씨(Uncle Tom)”와 “못된 검둥이”로 지칭하는 이러한 유형별 구획은 일상생활에서는 과거의 ‘못된 검둥이(bad nigger)’와 달리 절제된 삶을 살았으나 정치적으로 인종차별 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인종 위협을 창출한 무함마드 알리(Muhammad Ali)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의구심의 대상이 되었다.³⁾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인종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학문적 수단으로서 여겨져 온 흑인 스포츠사 내에서 잭슨이 독립 연구서가 사실상 전무할 정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반면 강한 행위력을 가진 능동적 주체로 여겨져 활발하게 전개된 존슨에 대한 연구가 최근까지도 인종주의 사회구조의 고질성을 비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종차별에 전면적 도전을 한 그의 기소와 국외 도주 그리고 타이틀 상실 이후의 명백한 몰락과 주류사회

1) Martin Polley, *Moving the Goalpost: A History of Sports and Society since 1945* (London: Routledge, 1998), p. 140; Gerald R. Gems and Gertrude Pfister, *Understanding American Sports* (New York: Routledge, 2009), pp. 233-235; David K. Wiggins and Patrick B. Miller, *The Uneven Playground: The Documentary History of the African Experience in Sport* (Urbana: Illinois University Press, 2003), pp. 68-71.

2) 흑인 스포츠 연구자인 제프리 자몬스(Jeffrey T. Sammons)는 이러한 이분법적 분류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1960년대 복서인 플로이드 패터슨(Floyd Patterson)과 소니 리스톤(Sonny Liston)을 두고도 극명하게 재현된 바 있다고 주장한다. Jeffrey T. Sammons, *Beyond the Ring: The Role of Boxing in American Society*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0), p. 128.

3) Mike Marqusee, “Sport and Stereotype: From Role Model to Muhammad Ali”, *Race & Class* 36-4(1995), pp. 1-29.

의 철저한 외면을 인종주의 사회 속에서 저항의 필연적인 결말로 여기고 따라서 인종주의 구조가 결국 개인의 행위력을 압도한다는 구조주의적 전체에 기초해 있었다는 점이다.⁴⁾ 이렇듯 존슨마저도 실제로는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다루어지며 그 행위력의 한계가 강조되고 있으면서도 한 명은 순응적으로 한 명은 저항적으로 양자가 정체성에 있어 큰 간극을 가졌다고 보는 전통적 시각이 완전히 극복되고 있지 못한 것은 책순에 대한 재정의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책순을 사회구조의 지속적 변화를 시도한 역사적 주체로 존슨과 동질화하고 이러한 전체하에서 양자의 차별성과 행위력의 한계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복싱은 실적주의(meritocracy)를 수용하는 스포츠의 한 부분이었고 신체적·정신적 능력에 의지한 승리가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정복을 상징적으로 실현하는 개인의 우월성을 극대화하는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인종 지배가 항상 시험에 직면하는 문화공간이었다. 이러한 복싱의 특성상 한 복서가 인종위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철저히 타자화된 존재였다는 점을 상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특히 책순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여러 사회적 경계를 활용하여 복합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인종 경계를 약화시키려고 시도했던 능동적인 주체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한 사회에는 다양한 사회적 경계들이 존재하며 하나의 경계가 다른 사회적 경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교호작용이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구성과 사회적 위계구조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는 교차성연구(intersectionality studies)가 유용한 방법론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적 혁신을 통해 책순이 계급(계급적 덕목), 국민(국가정체성), 젠더(이상적 남성성에 대한 의식) 등의 다양한 사회적 경계를 활용하면서 인종위계를 약화시키려 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합적 정체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책순 역시 인종구조에 맞선 주체적 행위력을 공유했다고 강조할 때 이것이 흑인이 인종차별사회에서 자연발생적인 인종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흑인들이 저항적일

4) 이러한 유형의 존슨 연구는 최근까지도 다음과 같이 계속되고 있다. Thomas R. Hietala, *The Fight of Century: Jack Johnson, Joe Louis, and the Struggle for Racial Equality* (Armonk: M. E. Sharpe, 2004); Geoffrey C. Ward, *Unforgivable Blackness: The Rise and Fall of Jack Johnson* (New York: Vintage, 2006).

수밖에 없었다고 보면서 인종을 사실상 선형적이며 궁극적인 집단 분류로 보는 인종본질주의(racial essentialism)적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흑인의 저항은 인종위계라는 공통의 조건을 공유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발화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발현될 때도 동일한 양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경계를 활용하여 인종경계의 약화를 지향할 때 그 자신의 정체성 역시 인종 외 여타 사회적 경계의 영향을 받으며 상황적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정체성에는 탈인종적 측면이 항상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잭슨을 분석대상으로 함에 있어 디아스포라 정체성 논의에서 자주 드러나는 인종본질주의적 해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근래 출간된 존슨에 대한 연구는 그의 유럽적 경험을 분석하면서 초국가적 여정을 통해 존슨이 듀보이스와 마찬가지로 흑백으로 분리된 세계를 인식하고 흑인 간의 탈국가적 연대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⁵⁾ 유사한 인식은 잭슨을 보다 저항적 주체로 복원하는 데이비드 위긴스(David K. Wiggins)의 연구가 미국 흑인 사회 내의 균열적 요소를 보지 않으며 잭슨과 미국 흑인들 간의 연대를 일면적으로 강조하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⁶⁾ 이는 흑인 스포츠사 연구가 흑인의 사회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흑인이라는 인종 범주의 해체적 경향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에 쉽게 불식되지 않은 학술적 문제이다. 그러나 흑인 개인별로 초국가적 경험이 같을 수 없으며 더구나 이러한 상이한 경험 속에서 한 개인의 정체성이 여러 사회적 경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는 한 인종차별을 경험하는 흑인들이 모두 자동적으로 초국가적인 흑인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귀속감 즉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 잭슨이 여타 다른 경계를 활용하여 백인의 인종경계를 약화시킬 때 역설적으로 흑인의 인종적 정체성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나아가 그의 독특한 초국가적 경험에서 유래하는 잭슨과 미국 흑인 간의 단절성은 전통적 인종본질주의적 해석의 문제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잭슨이 자신의 경력을 시작한 오스트레일리아를 떠나 미국 복싱계에 도전한 1888년과 1893년 사이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복서 경력을 반추

5) 이에 관하여 Theresa Runstedtler, *Jack Johnson, Rebel Sojourner: Boxing in the Shadow of the Global Color Line*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3).

6) David K. Wiggins, *Glory Bound: Black Athletes in a White America*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1997), pp. 42-44.

하면서 인종경계 약화를 위해 여타 사회적 경계들을 활용하는 개인의 행위력의 존재와 그로 인해 야기되는 흑인 정체성의 탈정형성과 구성성 그리고 이러한 복합적 정체성이 촉진시키는 저항과 순응의 교차 혹은 구조적 제약을 반영한 저항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 복싱이라는 특수한 문화기관을 배경으로 잭슨이 초국가적 남성성의 상징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남성성에 기댄 주체적 행위력의 작용을 살펴보고, 3장과 4장에서 미국에서 이러한 행위력의 작용에도 불구하고 실제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계급과 국가 경계를 활용하여 잭슨이 자신의 복합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자신을 둘러싼 인종경계를 약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동시에 인종경계를 약화시키기 위한 탈인종적 정체성 만들기 과정이 저항과 순응을 중첩시키고 디아스포라 정체성에 대립적이었음 역시 밝히고자 한다. 5장에서는 잭슨의 미국 경력 말기에 초점을 맞추어 여전히 그의 부정될 수 없는 남성성이 가져오는 특별한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고 최종적 목표인 타이틀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회경계를 활용하여 인종경계를 약화시키는 잭슨의 최후의 노력과 그 한계를 고찰할 것이다.

II. 초국가적 남성성의 상징 복서 피터 잭슨

피터 잭슨은 1861년 서인도제도의 덴마크 식민지 세인트 크룩스(St. Croix)에서 출생하였으나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하였다. 잭슨은 1879년에 선원이 되었으며 그의 탁월한 신체 능력을 높이 평가한 미국인 선주는 시드니의 체육클럽에서 복싱을 배울 것을 권유하였다. 당시 오스트레일리아 복싱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영국의 유명 복서 잼메이스(Jem Mace)가 1877년 이래 오스트레일리아에 체류하면서 퀸즈베리(Queensberry) 규정에 의거한 복싱을 소개하였으며 이 신사의 수련을 위해 만들어진 아마추어 복싱 규정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프로복싱이 노동자들이 열광했던 런던(London Prizefight) 규정에 의거한 맨주먹 경기(bare-knuckle fight)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잭슨은 복서 출신으로 호텔업으로 돈을 번 클럽 소유주 래리 폴리(Larry Foley)에게서 이 새로운 기술적 복싱을 배웠는데 뛰어난 실력으로 인해 이미 “그를 (진정한) 남성으로 우러러보는” “여러 (백인)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다.⁷⁾

7) “Peter Jackson,” *Sportsman* (June 7, 1892), p. 2.

1883년에 잭슨은 잭 피터(Jack Peter)와 두 차례 대전하여 1차전에는 무승부를 기록하였으나 2차전에서 7회 KO승을 거두면서 프로복서의 길로 접어들었고, 1986년에 톰 리(Tom Lee)를 꺾고 오스트레일리아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다.⁸⁾ 1887년에 그는 복싱 입문 이후 처음으로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경험하였다. 시드니를 방문하여 당시 오스트레일리아에 보급되지 않은 펀칭 볼(punching ball)을 사용한 연습 시범을 보이고 이어 실전 상대를 찾던 미국인 복서 잭 버크(Jack Burke)가 인종 간 경기를 거부하는 자국 복싱계의 관습인 ‘컬러 라인(color line)’을 내세워 잭슨이 제안한 경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었다. 잭슨과의 경기를 기대했던 오스트레일리아 복싱 팬들의 분노를 대변했던 당시 한 신문은 다음과 같이 반발하였다. “피터 잭슨은 지구상 어디에서 왔든지 백인 쓰레기를 향해 가장 큰 목소리로 대결을 신청할 것이다. (겁에 질린) 버크는 귀가 먹은 척 하겠지만.”⁹⁾

당시 승승장구하던 그를 주목한 메이스는 “잭슨을 이길 수 있는 남성은 (미국 헤비급 챔피언) 존 L. 설리번(John L. Sullivan)뿐이다”고 단언하였는데 이는 잭슨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더는 걸맞은 상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¹⁰⁾ 더 큰 명성과 금전적 이익을 원했던 잭슨은 1888년에 그의 후견인들과 지지자들의 배움을 받으며 미국으로 출발하였다. 당시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 한 신문은 오스트레일리아 스포츠계가 잭슨을 자국과 자국의 남성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여겼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잭슨은 그의 단단한 오른손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주권(sovereignty)을 담은 작은 네 개의 가방을 든 채로 조용히 그리고 겸손하게 떠났다”¹¹⁾

1888년 4월 18일에 시드니를 출발한 잭슨은 5월 12일에 미국 서부 해안 최대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다. 그는 도착 직후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극장 소유주 잭 할리넨(Jack Hallinan)의 주선으로 스팅 시범을 보이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하였다. 6피트 1인치가 넘는 신장에 40인치가 넘는 가슴둘레를 가진 “남성성의 상징” 같은 그의 모습은 미국의 복싱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는데, 1888년 7월

8) *Australian Star* (May 23, 1891), pp. 5, 8.

9) Bob Petersen, *Peter Jackson: A Biography of the Australian Heavyweight Champion, 1860-1901* (Jefferson: McFarland & Company, 2005), p. 52.

10) “Paths of Pugilism,” *Salt Lake Herald* (November 19, 1889), p. 1.

11) “Champion Peter Jackson,” *Dead Bird* (July 20, 1889), p. 7.

14일자 National Police Gazette에 의하면 한 복싱팬은 잭슨이 미국 복싱계에 가져올 파장을 다음과 같이 예견하였다. “백인 복서들은 과거보다 더 열심히 켈러 라인을 내세울 것이다.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그(잭슨)를 만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 것이다.”¹²⁾

그럼에도 잭슨이 처음부터 높은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흑인 복서가 가진 선천적 결함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이 유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잭슨의 복서로서의 명성은 계속된 실전을 통해 얻어진 것이었다. 잭슨은 1888년 6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미 흑인 챔피언 조지 고드프리(George Godfrey)에 19라운드 KO승을 거두었으며, 1888년 12월에 서부해안 챔피언 잭 맥아울리페(Jack McAuliffe)로부터 타이틀을 획득함으로써 그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150명이 넘는 “명사 시민들”이 관중석에 착석한 경기는 새로운 복싱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후원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¹³⁾ 경기에 앞서 28세의 “유색인 남성(colored man)이자 오스트레일리아 챔피언”으로 소개된 잭슨은 “육체적 남성성”의 상징으로 묘사되었는데 그럼에도 도박 배당률은 미국 복싱 팬들이 맥아울리페를 “영리한 복서”로 여기지는 않았지만 “그의 큰 체구와 주먹의 힘”이 “유색인종 복서”에 우위를 점하게 만들 것이라는 인종주의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24라운드 동안 단 한 번만 맥아울리페에게 가격을 허용했을 정도로 완벽한 경기를 펼친 잭슨은 “상대의 턱에 강한 타격”을 가하며 경기를 종료시켰다.¹⁴⁾

이후 경기들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면서 1889년에 이미 잭슨은 미국 복싱계에서 설리번의 시대를 종결시킬 도전자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설리번은 흥행을 보장해줄 상대를 원하면서도 켈러 라인을 고수하였다. 챔피언의 트레이너였던 윌리엄 멀둔(William Muldoon)은 전통적 인종론에 기초하여 잭슨의 복서로서 능력을 부정하면서 이 결정을 정당화하였다.¹⁵⁾ 그러나 이러한 설리번의 회피에 대한 반발은 복싱팬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되었는데 그 함의는 중요했다. 양자의 실력을 실제로 겨루어 보아야 한

12) “Peter Jackson,” *Evening World* (May 30, 1892), p. 1; “Pugilistic,” *National Police Gazette* (July 14, 1888), p. 10.

13) *Daily Evening Bulletin* (December 29, 1888), p. 4.

14) “The Championship,” *Daily Evening Bulletin* (December 29, 1888), p. 4.

15) “Paths of Pugilism,” *Salt Lake Herald* (November 9, 1889), p. 1.

다는 것은 승부의 불가예측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은 선협적인 인종 우월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스포츠의 승패는 인종적 특징이 아니라 개인적 자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견해가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복싱은 인종질서의 안정화 도구만은 아니었다. 도리어 인종지배가 항시 도전에 직면하는 공간이었다. 그러기에 잭슨은 그 존재 자체로 인종질서를 위협하였던 것이다.

잭슨과의 경기를 회피하는 설리번에 대해 많은 복싱팬들이 챔피언의 자격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제이 케이(Jay Kay)라는 복싱 팬은 설리번이 “그가 무적이라고 맹신하는 자신의 친구들”을 제외한 “공정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챔피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부의 흑인 스타” 잭슨을 제압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설리번이 복서로서 그와 대등하고 만약 패한다면 남성답게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을 잭슨을 제압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⁶⁾ 양자의 대결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피부색과 상관없이 경기의 승자를 육체적으로 가장 뛰어난 남성의 상징인 헤비급 챔피언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를 보여주듯 Chicago Sporting Journal의 휴 고호(Hugh Keough)는 “피부색”으로 인해 차별을 받으면서도 잭슨이 “공정하고 정당한” 경기를 통해 경쟁자들을 차례로 굴복시킨 최적의 도전자라고 옹호하였고, “힘과 두뇌 그리고 열정에서 뒤지지 않는 흑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게 될 때 이 용기있고 총명한 ‘검둥이(nigger)’는 백인에 동등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고호는 흑인에 대한 비칭을 인용구로 처리함으로써 자신이 이러한 인종 비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다음과 같이 잭슨을 지지하였다. “그의 피부에 상처를 내보라. 당신들은 그의 피부가 하얗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잭슨이 당신의 앞에 서 있다면 그의 위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마땅히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¹⁷⁾ 복싱 평론가인 윌리엄 에드워드(William Edwards)는 “명민한 남성”인 잭슨의 “인내(gameness)”를 높이 평가하고 만일 “만약 설리번과 잭슨 간 경기가 실현된다면 이는 서로 대등한 신체적 능력을 가진 두 선수의 격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¹⁸⁾ 나아가 적지 않은 복싱 팬은 과거 동일 상

16) “The Recent Great Battle and the Possibilities of a Colored World’s Champion,” *Washington Bee* (July 20, 1889), p. 1.

17) “John Will Fight Pete” *Appeal* (December 14, 1889), p. 1.

18) “Six Black Knights,” *Pittsburgh Dispatch* (December. 22, 1889), p. 15.

대를 대상으로 한 전직들을 비교하면서 경기가 성사된다면 잭슨이 더 승산이 있다고 예상하였다.¹⁹⁾

이렇듯 복서로서 잭슨의 실력에 깊은 인상을 받고 그의 도전자 자격을 인정하는 복싱 팬들 사이에서 백인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선천적 우월함에 대한 믿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듯 남성성의 상징이 된 흑인 복서의 존재는 인종경계와 위계에 혼란을 가져오면서 링을 인종적 특징보다 개인적 자질이 성공의 열쇠로 여기는 실적주의의 장소로 만들었다. 그러나 링 안과 밖은 다른 세계였다. 링 위에서 인정받은 남성성만으로는 사회적 차별을 약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인종차별을 대면하면서 잭슨은 그를 둘러싼 인종경계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그것은 계급과 국가 경계를 활용하여 백인들의 인종경계 의식을 교란하는 것이었다.

III. 잭슨과 계급적 자아인식

남북전쟁 이후 부상했던 인종평등 사회 건설의 열망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남부의 개조를 주도한 공화당은 전후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친자본 부패 정당으로 변해갔고 이에 민주당은 북동부 도시지역에서 불만 세력을 규합하여 당세를 회복하였다. 양당정치가 복원됨에 따라 지역 간 정치적 갈등이 다시 첨예화되었다. 공화당원들이 주도하는 남부 주 정부에 대한 물리적 저항과 소요가 격화되며 주 정부들이 백인 인종주의자들에 장악되어 가는 가운데 북부의 재건 의지 역시 감소되었다. 1876년 대선 결과를 둘러싼 논쟁이 공화당의 승리를 인정하는 양당 간의 타협으로 귀결되면서 연방군의 남부로부터 완전 철수가 단행되고 이후 남부는 각종 차별법을 제정하여 흑인의 시민권을 제한하였다. 흑인의 참정권과 이동 및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린칭과 같은 사적 폭력이 흑인 통제를 위해 활용하였다. 억압을 피해 동북부와 서부로 이주한 흑인들은 하층계급 백인에 의해 거주지와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자로서 적대시되었고 인종 갈등이 이들 지역에서도 고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896년의 대법원 판결이 공식적으로 승인하기 이전부터 남부의 공공장소 인종격리 제도가 동

19) "Sullivan and Jackson," *Pittsburgh Dispatch* (November 24, 1889), p. 6.

북부와 서부에서도 정착되었다.²⁰⁾ 미국은 인종차별이 가장 제도화된 장소였던 것이다.

잭슨은 미국 도착 직후부터 레스토랑과 살롱에서 출입이 거부당하면서 미국 내에서 흑인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히 인식하였다. 그는 이러한 차별 대우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는데 특히 자신이 즐기는 운동인 수영을 하기 위해 찾은 수영장에서 입장을 거절당한 이후 인터뷰를 통해 “그의 피부색이 이야기하는 강한 편견”에 기초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인종격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²¹⁾ 그리고 육체적 남성성의 과시만으로 인종차별이 가해지는 사회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 잭슨은 계급적 지표를 활용하여 자신을 둘러싼 인종 경계를 약화시키려 노력하였다.

최고 수준의 육체적 남성성을 과시하는 격렬한 신체적 경쟁으로서 복싱이란 운동의 특성은 선수 개인에 대한 팬들의 숭배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복싱계에서 잭슨의 인기는 초인적 경기력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절제된 태도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복서 경력을 시작할 때부터 그를 상징하는 덕목이었다. “그는 한 명의 복서로서는 잔인하고 교활하지만, 한 명의 남성으로서서는 훌륭한 심성을 가지고 있으며 관대하다”는 폴리의 평가가 보여주듯이 잭슨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통상 흑인의 전형성으로 여겨지는 유순함과 순진함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적인 경기력과 더불어 링 밖에서 보여주는 신사적 태도에 기인하는 것이었다.²²⁾

이러한 평가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복싱 및 스포츠팬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되었다. 한 스포츠 신문은 “온화한 얼굴과 우아한 태도”를 가진 잭슨이 육체적으로 그 어떤 백인 남성보다 우월할 뿐 아니라 “친근함과 신사적 태도”를 겸비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기사는 잭슨이 육체적 강인함과 중간계급적 덕목을 겸비한 완벽한 남성성의 보유자이기에 “그의 직업과 피부색을 부끄러워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였다.²³⁾ 이러한 신사적 모습으로 인해 잭슨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식민모국 영국

20) Thomas S. Kidd, *American History* (Nashville: B&H Academic, 2019), pp. 304-322.

21) *Wisconsin State Journal* (December 29, 1888), p. 1.

22) *Victorian Express* (October 28, 1892), p. 1.

23) “Peter Jackson Portrate,” *Sportsman* (March 28, 1894), p. 2.

의 귀족을 연상시키는 인물로 여겨졌고 ‘검은 피부의 왕자(Black Prince)’ 라는 그 유명한 별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잭슨의 태도에서 순응성을 읽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스포츠 전문지 『Referee』는 그가 오스트레일리아 복싱 팬들 사이에서 칭송을 받았던 이유로 “통상적으로 유색인종에게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여겨지는 겸손함”을 들었는데 잭슨의 절제된 성격이 인종질서를 교란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백인들이 선호하는 복서가 되도록 만들었으며, 또한 그가 예외적으로 평가되는 것과 달리 하나의 집단으로서 흑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종 전형성이 여전히 널리 공유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²⁴⁾

이러한 백인 중간계급 덕목의 내재화는 미국에서도 그가 안착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미국에서 잭슨은 링의 신사로 행동하였다. 1889년까지도 여전히 설리번이 타이틀전을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맨주먹 경기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잭슨은 이러한 구래의 경기 방식을 “대중의 존경”을 필요로 하는 자신과 같은 “복서”가 거부해야 하는 “링의 검투사들”의 것으로 비판하며 복싱의 폭력적 전통과 단절을 시도하였다.²⁵⁾ 따라서 미국에서의 경력 초기부터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복서”로 알려졌던 잭슨은 다음의 신문기사가 지적하는 바처럼 설리번과 그의 힘을 앞세운 슬러깅 경기 방식을 모방하는 선수들과 스스로를 차별화하였고 중간계급적 가치를 링 위에서 실현하면서 자신을 더욱 링의 “신사”로 돋보이게 만들었다. “그(잭슨)는 영리함에 의존했고 (힘이 아닌 기교로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 상대와 거리를 둘 수 있는 긴 팔길이에 의존하였다. 그는 기술과 지구력을 겸비하였다...그는 한 방으로 상대를 제압하지 않고 (경기계획에 따라) 상대의 급소에 누적된 공격으로 우위를 확보하였다.”²⁶⁾

이러한 그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경기 방식은 링밖에서도 그를 지적인 인물로 보이게 만들었다. 잭슨을 “복서이면서도 상당히 학자의 형상을 가진” 인물로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운 것” 같이 “여러 주제에 관해 지식이 있으며” “우아하고 흥미로운 대화상대”라고 평한 한 기사가 이

24) “Peter Jackson Arrives in SF,” *Referee* (July 31, 1918), p. 7.

25) Petersen, *Peter Jackson*, p. 110.

26) “Sporting,” *San Francisco Examiner* (June 4, 1888), p. 5; “American Eyes on the Fight,” *New York Evening World* (May 30, 1892), p. 1.

를 잘 대변하였다.²⁷⁾

나아가 1889년 신문기자와의 대담이 보여주듯이 잭슨은 선수로서의 목적을 승리에 두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중간계급적 덕목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다. “나는 복싱과 스포츠를 폭력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복싱 외에도 수영, 조정, 달리기 등에도 능한데 이 모두를 신사가 되기 위한 수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²⁸⁾ 이렇듯 신사가 되기 위한 수련을 스포츠의 진정한 목적으로 내세우는 잭슨은 자신을 노동계급의 유희문화로부터 분리시키는 동시에 인격도야를 중시하는 부르주아지의 스포츠 문화를 지지하였다. 잭슨은 중간계급의 전통적 덕목을 수용함으로써 계급적 상승을 이루려고 하였고 이점에서 19세기 말 새로이 부상하는 계급지표인 의식적 소비를 통해 계급적 상승을 실현하려고 했던 존슨과는 차이를 드러냈던 것이다.

그의 바람대로 “강인하고” “신사 같은” 복서로 여겨지는 잭슨의 평판은 개인적 이익을 가져다주었다.²⁹⁾ 잭슨의 기술적 복싱과 절제된 태도가 복싱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후원자들이 복서에게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1880년대 말 이래 일예의 전념과 개인의 경제적 독립을 통해 남성성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워진 대기업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거대한 조직사회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중간계급 남성이 증가하고 그 결과 남성성을 구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스포츠가 노동계급을 넘어서 중간계급 남성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경기 시간의 제한 없이 KO로만 승부를 결정하는 가장 폭력적인 노동자 스포츠인 프로복싱을 순화시킨 아마추어 복싱도 그중 하나였다. 당시 미국에서 맨주먹 경기는 범법 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되었고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프로경기는 영국에서 제정된 퀸즈베리 규정을 변형한 브룩클린 이글스(Brooklyn Eagles) 규정에 따라 글러브를 착용하고 라운드의 제한을 두어 일방이 완전히 쓰러지지 않으면 점수로 승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이로써 오랫동안 노동자의 스포츠였던 프로복싱 경기는 부르주아지의 이상을 반영하는

27) “Jackson Defeats Slavin in London,” *New York Evening World* (May 30, 1892), p. 1.

28) Petersen, *Peter Jackson*, p. 53.

29) *Hawaiian gazette* (Aug 5, 1890), p. 1.

안전한 환경에서 기술을 겨루는 경쟁으로 변모하였다. 이 아마추어 규정을 수용한 새로운 프로경기는 중간 및 상층계급 남성들의 단련 기관인 체육클럽의 주도로 성행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는 그 중심지 중 하나였다. 이렇듯 복싱계에서 힘과 체력을 앞세우고 과다하게 호전적인 남성성을 이상화하는 전통적 복싱과의 단절을 희망하는 중간 및 상층계급 인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잭슨의 기량과 절제된 태도는 유수의 후원자들을 확보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잭슨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권위를 가진 캘리포니아체육클럽(The California Athletic Club)의 대표이자 지역 유력인사인 라마르틴 풀다(Lamartine R. Fulda)의 후원을 받게 되었으며 클럽의 복싱 교사로 채용되었다. 클럽 환영 만찬에서 풀다는 잭슨을 공식적으로 “대부분이 부유한 지역유지인 200여 명의 회원들”에게 소개하였고 “이들 참석자들은 잭슨이 이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고 여러 번 공언할 정도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환영을 해주었다.” 이 만남은 잭슨이 “복싱에서 컬러 라인을 경멸하는 부유한 지역 인사와 스포츠 애호가들”의 적극적 후원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³⁰⁾

잭슨의 프로경기를 후원함으로써 인해 명성이 더욱 높아진 클럽의 관계자들은 강인한 육체적 능력과 절제력을 겸비한 이상적 남성성을 구현하는 그를 백인 경계 내로 진입한 인물로 여겼다. 실례로 클럽의 간부인 조지 나이트(George A. Knight)가 회합에서 “잭슨은 캘리포니아 주의 링에 오른 가장 피부색이 하얀 남성이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는 좌중의 큰 박수를 받았으며 1000명이 넘는 사람 모두가 이에 동의하였다.” 이 장면을 보도한 기사는 “잭슨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순혈의 코커시안(Caucasian) 인종의 한 성원으로 여겨졌다”고 강조하였다.³¹⁾

잭슨 역시 클럽과 상류층 후원자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 잭슨은 1889년 7월 15일에 시카고에서 설리번을 만나러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기자들에게 절제된 분노를 표출하고 자신이 설리번과 같은 부류가 아니라 사회의 신사들로부터 환영받는 인물이라고 강조하며 우울감을 드러

30) “Peter Jackson Arrives in SF,” *Referee* (July 31, 1918), p. 7.

31) “Gossip of Boxers,” *Seattle Post-Intelligencer* (February 12, 1892), p. 12.

났다. “미국에 온 이래 전 교육받고 부유한 높은 사회적·정치적 지위를 가진 많은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저를 잘 대우해 주었습니다. 캘리포니아체육클럽이 제 뒤에 있는 한 저는 그 누구보다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이 클럽의 인사들은 제가 지금까지 (신사답게) 행동한다면 경기의 승패와 상관 없이 저를 친구로 여길 것입니다. 저의 복서로서의 능력과는 별개인 이러한 진정한 우정을 얻은 것은 기쁜 일입니다.”³²⁾ 이렇듯 잭슨은 계급적 가치를 공유하는 백인 인사들과 동류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계급경계를 활용하여 설리번이 대표하는 백인 노동자층을 타자함으로써 인종경계의 혼란을 야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인종경계 약화를 위해 활용된 계급의식은 잭슨이 부유한 백인들의 문화기관을 준거집단으로 여긴 것에서 드러나듯이 탈인종적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인종경계의 약화를 위한 주체성의 발휘는 인종 정체성과는 대립적일 수 있었던 것이다.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잭슨은 백인들의 계급적 덕목을 준수하는 제약을 역으로 활용하여 설리번과 같은 백인 노동계급 복서들에 대한 우월함을 공개적으로 과시하였다. 특히 주류 백인사회의 지지를 받는 인물로 통상 흑인에게 허락되지 않는 인종예의를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중간계급의 이상적 남성상을 구현하지 못하는 백인 복서들을 조롱하는 특권을 향유하였다. 실례로 1889년에 그가 상대한 유명 백인 복서인 맥아올리페에 대한 손쉬운 승리 후에는 라커룸 인터뷰에서 “유색인종 신사”라는 호칭에 걸맞게 상대의 근성을 평가하면서도 맥아올리페를 통상 백인이 흑인 성인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인 “소년(boy)”으로 지칭하며 패자인 그의 남성적 성숙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³³⁾ 그 이유는 이후 언론에 공개된 인종적 전형성을 전복시키는 그의 편지에서 잘 드러났다. “나는 그(맥아올리페)에게서 조금도 총명한 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구력이 있고 주먹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명석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둘리(Dooley)조차도 그를 머리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³⁴⁾

32) Petersen, *Peter Jackson*, p. 88.

33) *San Francisco Examiner* (December 30, 1888), p. 2.

34) “A Letter From Peter Jackson,” *Referee* (July 5, 1888), p. 3. 둘리(Mr. Dooley)는 언론인 핀리 피터 던(Finley Peter Dunne)이 1893년에 만든 가공의 아일랜드 이민자 바텐더 형상으로 매우 우둔하나 영똥한 방식으로 세대를 풍자하는 인물이었다.

특히 그는 중간계급의 스포츠 정신을 어기며 반칙을 행하는 백인 복서를 향해서 극심한 모욕을 가하였다. 1889년 7월 30일에 잭슨은 자신을 “검둥이(black nigger)” 라고 모욕하며 시종일관 클린치를 시도하며 시간을 보내는 톰 린치(Tom Lynch)와 경기 후 관례인 악수를 거부하였는데 이에 항의하는 상대에게 “신께서 너 같은 저질의 경멸적인 놈과는 악수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통명스럽게 대꾸하였다.³⁵⁾ 1889년에 잭슨을 상대한 영국 챔피언 잼 스미스(Jem Smith)는 잭슨과 경기를 하다 버팅을 하여 실격패를 당하였는데 기사들은 경기 후 패배를 승복하지 못하고 누군가 말려주길 기대하며 잭슨에게 달려들다 저지당한 스미스와 자신감에 넘쳐 “오게 내버려둬! 그냥 두라고!” 라고 외치는 잭슨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묘사하였다.³⁶⁾

백인들 역시 때때로 드러나는 잭슨의 도전적인 태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전국적 명성을 가지게 된 잭슨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한 동부 신문은 그가 “좋은 태도” 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직설적이며 남성적인” 인물이었다고 평가함으로써 그가 필요하다면 자신의 명성과 인기를 활용해 백인들을 향해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드러냈다는 점을 암시하였다.³⁷⁾

이렇듯 잭슨은 백인의 계급 가치에 순응하면서도 저항적이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후견인들과 자신이 충성을 바치는 클럽이 곤욕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인종예외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았다. 이점에서 존슨과 저항의 방식과 정도에 있어 차이는 명확했다. 잭슨은 존슨과 달리 백인 매니저를 내세워 경기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다른 흑인 복서들과 마찬가지로 대표권을 클럽과 매니저 찰스 데이비스(Charles “Parson” Davies)에 양도하였다.³⁸⁾ 그는 존슨과 달리 적나라하게 부를 자랑하지도 않았다. 또한 잭슨이 “항상 예의를 지켰으며 절대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의 명확한 의견을 듣기가 쉽지 않았다” 는 한 기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아의식이 강하게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한 기사는 잭슨이 “천성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과장하기를 싫어하였

35) *Referee* (October 16, 1918), p. 10.

36) “Smith a Puddin’ for Jackson,” *Salt Lake Herald* (November 13, 1889), p. 1.

37) “Gossip of Boxers,” *Seattle Post-Intelligencer* (February 12, 1892), p. 12.

38) “Sullivan Must Wait,” *Pittsburgh Dispatch* (November 14, 1889), p. 6.

고 이점에서 그의 짧은 머리를 가진 대중들(흑인들)로부터 뚜렷이 구분되었다”고 칭찬하였는데 이를 통해 잭슨이 인종예의를 준수함으로써 그 자신을 둘러싼 인종경계를 약화시키는 데 성공하였지만 그럼에도 인종전형성 자체를 해체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³⁹⁾

무엇보다 잭슨은 백인 여성과의 성적 접촉을 거부함으로써 가장 엄격한 인종예의를 철저히 준수하였다. 가령 그가 마차 사고에서 구한 부유한 백인 과부의 구애는 캘리포니아클럽 내부의 우려를 야기했지만 클럽 관계자에 의하면 잭슨은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1889년에 스미스와의 경기를 명분으로 영국행을 선택하였다.⁴⁰⁾ 잭슨의 절제는 인종 간 이성관계에 보다 개방적인 영국 체류 기간에도 이어졌다. 이 기간 중 백인 여성과의 연애 여부는 인종 간 결혼에 보다 수용적인 오스트레일리아와 이에 우려를 가진 미국 기자들의 관심사가 되었지만 잭슨은 한결같이 백인 여성의 접근을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⁴¹⁾ 뿐만 아니라 잭슨은 연애가 아닌 “캘리포니아체육클럽만이 자신의 관심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⁴²⁾ 백인 중간계급 남성성의 전통적 가치를 활용하여 자신의 긍정적 전형성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듯 잭슨은 계급경계를 활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 인종경계를 약화시키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순응과 저항을 교차시켰다. 그럼에도 그의 주체성을 발휘되는 과정에는 여전히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중간계급 덕목과 인종예의에 대한 순응은 그를 예외적 흑인으로 만들어 인종경계를 넘나들게 하였으나 흑인의 집단적 인정을 유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예외적 흑인의 존재는 보통의 흑인들과 대립항이었으며 그럼으로써 기성의 인종주의 구조는 균열 속에서 재생산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벨파스트를 방문한 잭슨을 증의적으로 평가한 아일랜드 신문 『Freeman's Journal』의 기사는 시사적이었다. “잭슨에 관해서는

39) *Cincinnati Commercial Gazette* (September 4, 1893), p. 3.

40) “Jackson's Sweetheart,” *Referee* (February 12, 1890), p. 6.

41) “Spotlets,” *Evening World* (December 13, 1889), p. 4; “Peter Jackson in America,” *Tasmanian* (March 22, 1890), p. 7; “Peter Jackson in America,” *Evening News* (Mar. 11, 1890), p. 2.

42) “Jackson Talks,” *San Francisco Chronicle* (January 31, 1890), p. 1; *Referee* (September 3, 1890), p. 8.

칭찬할 점이 많다. 먼저 그는 거구이지만 모든 정신적 덕목과 선천적인 귀족성을 가진 완벽한 신사이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음악의 운율과 같이 속삭이듯 대화한다. 그의 말은 속되지 않다. 그의 억양은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며 구사하는 어휘력도 매우 수준이 높다. 그는 우호적인 신사이다. 만약 고귀한 야만인이 잭슨과 같은 사람이라면, 백인을 연기하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가 강조하듯이 백인들의 사고 속에서 잭슨은 백인을 능가하는 신사로 흑인의 인종향상의 견본이었지만 그럼에도 절반은 문명 속에 다른 절반은 야만 속에 위치해 있었다. “고귀한 야만인” 잭슨은 능숙하게 백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에 다른 “야만인” 들과는 구획되었지만 영원히 진정한 백인이 될 수 없었다. 그는 백인의 모방자였기 때문이었다.⁴³⁾ 인종차별을 탈피하기 위하여 중간계급 신사가 되려던 잭슨의 노력은 그를 명예백인으로 만들고 인종경계의 혼란을 가져왔지만 미국사회는 물론이고 흑백의 구획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그에게 인종구획으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가져오지는 못했던 것이다.

IV. 유랑하는 이방인 신사 잭슨

계급적 경계를 활용하여 인종경계를 혼란시키려는 잭슨의 모호한 순응은 한계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종적 위협이 완전히 봉쇄되었다고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백인 복서에 대한 우월함을 과시하는 잭슨을 미국의 흑인들이 자신들의 대표자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잭슨은 미국 도착 즉시 거세의식에 시달리던 흑인 대중들 사이에 영웅이 되었다.⁴⁴⁾ “링컨의 노예해방 이후 샌프란시스코의 흑인들이 그토록 열광한 적은 없었다” 라며 흑인대중의 잭슨에 대한 열광적 반응을 보도했던 한 기사는 천성적으로 “감정적인” 흑인들이 그들의 영웅에 쉽게 감정이입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⁴⁵⁾ 잭슨은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흑인들을 몰고 다니는 유명인사가 되었으며 그의 명성은 빠르게 전국의 흑인 사회로 확산되었다.

43) *Freeman's Journal and Daily Commercial Advertiser* (December 24, 1889), p. 6.

44) David Wiggins, *Glory Bound*, p. 151.

45) “Colored Festivities,” *San Francisco Examiner* (December 30, 1888), p. 2.

흑인들의 열정적인 잭슨과의 일체화는 흑백 간의 충돌을 야기하였다. 시범경기를 위한 잭슨의 볼티모어 방문이 그 사례였다. 경기 전 잭슨은 유명 백인 복서들을 열거하며 “그들 중 누구라도 무릎 꿇릴 것이다”고 선언함으로써 흑인들의 격렬한 반응을 야기하였다. 흑인들이 “그에게 광적으로 열광하는” 모습이 “백인에게 너무 불쾌하게 여겨져” 잭슨의 입장과 퇴장 시 백인 관중들이 그에게 썩은 달걀을 던지며 소요를 일으켰던 것이다.⁴⁶⁾

잭슨에 대한 흑인사회의 일체감은 사실 존슨에 대한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백인 중간계급에게 혐오의 대상이었던 맨주먹 경기에서의 성공이 흑인의 인종향상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여기며 흑인 대중 사이에 복서들의 인기를 우려하던 흑인 중간계급 지도자들이 절제된 신사적 태도를 가진 잭슨을 지지하였기 때문이었다. 유명 사회활동가인 프레더릭 더글라스(Frederick Douglass)도 그중 한 명이었다. 1889년 아이티 방문 이후 아이티 혁명의 지도자 투생 루베르튀르(Toussaint L'Ouverture)와 같이 지성과 강인한 육체를 가진 흑인 남성을 이상화하기 시작하였던 더글라스는 잭슨을 그 견본으로 여겼으며 자신의 사무실에 “흑인 문제를 주먹을 가지고 해결하고 있는” 잭슨의 사진을 걸었던 것이다.⁴⁷⁾

잭슨이 흑인대중의 인종향상을 추구하는 흑인 지도층의 호감을 사고 있다는 점은 분명했다. 1890년 2월에 시범경기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잭슨은 흑인 지역유지 모임인 아칸서스클럽(Acanthus Club)에 초대받았고 흑인 지식인들이 백인 중간계급의 덕목을 내재화한 잭슨을 흑인의 진보를 보여주는 상징인 ‘인종적 대표(race man)’로 여기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클럽 회장의 연설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잭슨씨는 모든 흑인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진정한 남성입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가 세계 챔피언이 된 그를 환영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⁴⁸⁾

46) “Rotten Eggs for Jackson,” *Daily Alta California* (January 27, 1890), p. 5; *Morning Oregonian* (February 27, 1890), p. 2; “Jackson Rotten Egges,” *Los Angeles Daily Herald* (February 27, 1890), p. 5.
47) James Weldon Johnson, *Along the Way: The Autobiography of James Weldon Johnson* (1933; reprint, New York: Da Capo Press, 2000), p. 208.
48) *Tasmanian* (March 22, 1890), p. 7; “Peter Jackson in America,” *Australian Town and Country Journal* (March 15, 1890), p. 25.

지식계급의 시각을 반영하는 흑인신문들 역시 잭슨을 ‘인종적 대표’로 만들었다. 대표적 흑인신문 『New York Age』는 증가하는 “흑인 학생들이 흑인의 지성의 진보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잭슨...과 같은 복서가...흑인의 육체의 진보를 보여준다”고 자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진보의 사례들을 가지고 흑인들이 “앵글로색슨인들이 세상을 독점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⁴⁹⁾ 『Indianapolis Freeman』은 잭슨을 위한 지역유지들의 환영 만찬을 보도하면서 “이례적 강인함을 가진” 잭슨이 흑인이 “육체적인 면”에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한 상징이라고 단언하였다. 특히 기사는 그가 “난봉꾼”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고 예절바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흑인 지도층에 환영받는” 잭슨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제력을 잃지 않고” “당신들(흑인 지도자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에 만족감을 표현하였다.⁵⁰⁾

후일 잭슨과 존슨 두 복서를 비교했던 흑인 문인 제임스 웰던 존슨(James Weldon Johnson)은 잭슨이 “복서이면서도 동시에 교양 있는 신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백인들 하여금 그를 “백색 피부의 유색인 남성”으로 여기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잭 존슨이 피터 잭슨과 같은 태도를 가졌다면 복싱계에서 흑인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⁵¹⁾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잭슨이 20세기 초까지도 흑인 대중이 백인 중간계급 덕목을 내재화하는 인종향상을 달성함으로써 인종 통합이 촉진되기를 바랬던 흑인 지식인들 사이에서 흑인의 진보를 상징하는 견본으로 여겨졌다는 점이었다.

잭슨은 전국적 명성을 가지게 된 1890년에 전통적 복싱의 중심지 뉴올리언스(New Orleans)가 포함된 남부 순회활동을 시작하였다. 그의 남부 순회는 인종차별에 지친 이 지역 흑인들의 열광적 반응을 끌어내며 흑인사회의 잭슨과의 일체화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잭슨은 남부에서 극심한 차별을 경험하였다. 가령 연습경기를 위해 들른 켄터키 주

49) *New York Age* (September 20, 1890), p. 4.

50) *Indianapolis Freeman* (May 17, 1890), p. 4.

51) James Weldon Johnson, *Black Manhattan* (New York: Da Capo Press, 1991), p. 73.

루이스빌(Louisville)에서 그는 백인 동료와 분리되어 평상시 묵던 고급호텔이 아닌 흑인 살롱주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러한 대우는 항상 백인사회 내에서 생활해 온 그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⁵²⁾

이렇듯 잭슨이 극심한 인종차별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미국 흑인사회의 열광적 지지를 받았던 점은 인종본질주의에 의거하여 그를 해석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 미국 흑인과 잭슨을 디아스포라 정체성으로 연결하고 넓게는 흑백으로 분할된 세계 속에서 좁게는 인종차별적 미국사회 속에서 동질적인 피압제자로서 인종의식을 우선시하는 흑인의 정체성을 공유하게 된다고 설정하는 것이다.

초국가적 정체성 연구의 시원과 같았던 종족적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논의는 언어나 종교와 같은 객관적인 문화적 공유 요소를 전제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종족 경계의 유동성을 배제할 위험성을 내재한다.⁵³⁾ 유사한 위험이 흑인 디아스포라 논의에도 상존한다. 흑인의 경우 듀보이스의 정의가 보여주듯이 피부색으로 구획된 이분법적 세계에 대한 인식이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분법적 인식은 흑인의 유대감과 저항의식이 흑인 특유의 사회적 지위로부터 자동적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이는 노동계급 정체성을 논함에 있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노동자 계급의식은 공동의 문화행위를 통해 확산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계급적 집단의식의 최종적 실현 여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막스 베버(Max Weber)보다는 노동자의 동질적 환경이 필연적으로 계급의식을 배태한다고 보았던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논리를 수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사회집단에 대한 강한 소속감은 여타 사회적 경계가 부차적이 될 때에만 발현되며 이는 종족과 인종 디아스포라 정체성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종족이나 인종집단 개별 성원들의 정체성이 개인의 독특한 경험과 외계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의해서 형성되며 특히 여타 중

52) Petersen, *Peter Jackson*, p. 119.

53) 가톨릭과 대기근의 기억을 축으로 만들어진 초국가적 정체성을 고찰하는 아일랜드 디아스포라 연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Lawrence J. McCaffrey, *The Irish Catholic Diaspora in America*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97), ix; Lawrence J. McCaffrey, "Diaspora Comparisons and Irish-American Uniqueness," Charles Fanning ed., *New Perspectives on the Irish Diaspora*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2000), pp. 17-20.

첩된 사회적 경계에 대해 개인이 가진 사고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한 디아스포라 정체성은 불안정한 것이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성공한 아일랜드계 미국인 복서들이 자신의 혈통적 원류인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때 대중의 열렬한 환영 속에서 혈연적·문화적 유연성을 느끼면서도 계급적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보다 선진적인 미국의 시민으로서 낙후된 아일랜드에 대해 이질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 미국인으로서 국가적 정체성을 강화했던 것이 사례이다.⁵⁴⁾

이와 유사하게 잭슨이 억압받는 미국 흑인들이 처한 상황을 탈피해야 할 것으로 이해하면서도 그들과 동질적 존재가 될 수 없었던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초국가적인 유랑자로서 특수한 경험이 그의 정체성을 다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운동선수로서의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를 중횡하며 자신을 후원하는 초국가적 백인 중상류층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였고 동류의식을 발전시켰다. 또한 미국에서 차별을 경험하며 미국의 흑인과 연대하는 새로운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갖기보다는 낯선 차별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국민 경계 안으로 받아들였던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귀속감을 더욱 강화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초국가적) 인종 정체성은 선형적인 것이 아니었다. 잭슨의 경우 계급경계와 국가경계와 끊임없이 그의 인종 정체성을 교란하였던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잭슨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에서 모두 당지의 중상류층 사회 속에서 명성을 쌓았고 유대의식을 만들었다. 이는 영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아마추어 복싱 애호가로 1889년 캘리포니아클럽 방문 중 잭슨과 최초로 대면했던 32세의 영국 귀족 론스데일(Lonsdale)경 휴 로더(Hugh Lowther)는 최고의 후원자 중 한 명이 되었다. 잭슨과의 첫 만남을 후일 “한 사람이 항상 되돌아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특별한 순간”으로 회상했던 로더는 영국 스포츠계의 주요 인사였고 그와의 친분으로 인해 성사된 1889년의 잭슨의 영국 방문은 유서 깊은 펠리칸클럽(Pelican Club)이 주관하였다. 잭슨은 이 방문을 통해 클럽 회원이자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인 앨버트 왕자 등 새로운 후원자들과 교류하였다.⁵⁵⁾ 영국의 상류층

54) James J. Corbett, *The Roar of the Crowd: The True Tale of the Rise and Fall of a Champion* (New York: G. P. Putnam's Sons, 1925), pp. 227-235.

55) Petersen, *Peter Jackson*, pp. 83, 106.

사회에서 잭슨의 인기를 더욱 고조시킨 것은 그의 링 밖에서의 태도였다. 한 미국 신문은 잭슨이 출중한 실력과 정중한 태도로 “스포츠를 좋아하는 젠트리와 귀족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잭슨과 영국 챔피언 스미스와의 경기에는 퀸즈베리 규정의 창시자인 퀸즈베리 후작 존 솔토 더글라스(John Sholto Douglas)를 포함한 다수의 귀족들과 정계인사들이 참석하였다.⁵⁶⁾ 이들이 건 내기 돈은 승자로 명백히 잭슨을 선호하고 있었다.⁵⁷⁾

영국 방문 중 잭슨은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이 분명했는데 유명 언론인 E. B. 오스본(E. B. Osborn)은 후일 자신이 경기장에서 잭슨을 대면했던 기억을 회상하면서 그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스포츠 분야의) 흑인 우월성의 시대의 시작을 알렸던 인물”로 “위대한 복서”이자 “절대로 상대에 부당한 이점을 취하지 않는” “공평무사한 체육인”으로 칭송하였다.⁵⁸⁾ 영국 상류층 사회에서의 잭슨의 인기는 1891년에 전영체육클럽(National Sporting Club)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펠리컨클럽이 이후에도 그의 2회의 영국 방문을 지원하였던 점에서 잘 드러났다.

‘인종적 대표’ 개념이나 디아스포라 이론은 흑인들이 처한 환경을 국내적으로 혹은 초국가적으로 동질화시킨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흑인의 삶을 균질화하여 구체적 사례 분석의 필요성을 제거해 버리는 시각이 전제하는 바와 달리 흑인 복서들이 처한 상황은 같은 것이 아니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영국의 중상류사회 인사들과의 관계를 통해 잭슨은 그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백인 중간계급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계급적 정체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그의 정체성이 백인 계급집단과의 동질화를 통해 형성되는 한 백인의 인종경계만이 아니라 흑인의 인종경계 역시 불안정해지는 것이었다. 초국가적 경험 속에서 자신을 국제적인 교양인 사회의 일원으로 사고하는 잭슨이 과연 인종만으로 자신의 소속감을 만들며 미국의 흑인대중에 자신을 동일시하였을까?

흑인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잭슨이 발전시킴에 있어 또 다른 방해물은 그

56) “Sullivan Must Wait,” *Pittsburgh Dispatch* (November 14, 1889), p. 6; “Jackson Beats Smith,” *Evening Journal* (November 11, 1889), p. 1.

57) *Daily Telegraph* (November 11, 1889), p. 5.

58) *Warwick Examiner and Times* (November 15, 1911), p. 3.

의 국가정체성이었다. 잭슨이 흑인에 대한 비칭이 사용되는 호주에서 백인과 완전히 평등했던 것 아니었다. 그의 복싱 스승 폴리에 따르면 잭슨이 백인 복서 프랭크 슬라빈(Frank Slavin)을 완파하자 편지로 다음의 항의를 받았다. “흑인으로 하여금 백인을 짓밟도록 가르친 당신은 도대체 어떤 괴물을 만든 것인가?” 이렇듯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복싱과 스포츠를 인종위계의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이들도 많았다.⁵⁹⁾

그럼에도 잭슨은 많은 복싱과 스포츠 팬들 사이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표자로 여기지는 감정이입의 대상이었다. 가령 『Referee』는 잭슨이 미국으로 떠난 후 1면에 그의 전신사진을 실고 “겸손하고 우호적이며 예절 바른 태도와 뛰어난 기량으로 사랑받는” 잭슨이 “미국인들을 놀라게 할 오스트레일리아의 챔피언 복서”로서 자국의 명예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였다.⁶⁰⁾ 오스트레일리아의 언론이 1888년 9월의 그와 흑인 챔피언 고드프리의 경기를 “오스트레일리아 대 미국”의 대결로 규정하고 잭슨의 승리를 “오스트레일리아를 위한 승리”로 환호했던 것처럼 오스트레일리아의 백인 복싱 팬들은 미국행을 선택한 잭슨을 흑백으로 이원화된 초국가적 세계 속의 (열등한) 흑인으로서가 아니라 자국의 대표로서 미국에서 이방인이 된 동포로 인식하였다.⁶¹⁾ 남성적 동류의식과 국가 경계 등이 작용하는 한 이들에게 흑백으로 양분화된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세계 최고의 거대도시” 런던에서 잭슨이 “엄청난 인기를 얻은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한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잭슨의 식민 모국 영국에서의 활약과 그에 대한 영국 상류층의 환대 역시 오스트레일리아인들 사이에서 잭슨이 더욱 인기를 얻는 데 도움을 주었다.⁶²⁾ 『Referee』는 잭슨이 “귀족들”의 경탄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스포츠와 연예 전문지 『Dead Bird』는 “겸손하고 신사적인” 그리고 “단 일점도 (통상적으로 복서들에 결부되어 있던) 불량배의 특성이라고 없는” “그 속이 다 들여다 보일 정도로 백인”인 잭슨이 광적인 영국 팬들을 몰고 다니는 것에 자부심을 표현하였다.⁶³⁾ 특히 잭슨이 영국 챔피언 스미스를 꺾자 오스트

59) *Victorian Express* (October 28, 1892), p. 1.

60) “Peter Jackson,” *Referee* (September 26, 1888), pp. 1, 3.

61) “The Jackson-Godfrey Fight,” *Evening News* (September. 21, 1888), p. 6.

62) “Peter Jackson,” *Sportsman* (November 26, 1890), p. 2.

63) “Peter Jackson at the Pelican Club,” *Referee* (October 16, 1889), p. 8;

레일리아 스포츠계는 열광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인이 이겼다” 라는 한 신문기사 표제는 스포츠계가 잭슨을 자국의 대표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⁶⁴ 특히 『Dead Bird』는 영국 방문 중 잭슨의 승리에 대한 한 영국 언론인의 말을 인용하며 이를 식민모국과 식민지 관계의 전복으로 받아들였다. “전진하는 오스트레일리아!...이 얼마나 멋진 진보인가?...이것이 스미스가 잭슨에 패배한 이후 유일하게 남겨진 것이다. 우리가 가진 패배의 잔은 흘러넘칠 것이다. 우리는 지쳐가는 나이 든 국가일 뿐이다.”⁶⁵ 이렇듯 잭슨은 새로운 오스트레일리아 민족주의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잭슨이 경험하고 또한 항의하는 미국에서의 엄격한 인종구획에 대해 오스트레일리아의 여론은 반발하였다. 한 신문은 더 큰 명성을 찾아 “입양된 나라”를 떠난 잭슨이 “강한 인종적 편견이 존재하는 양키의 나라”에서 어려움을 겪고 특히 인종차별로 인해 흑인들과만 싸우게 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⁶⁶ 『Australian Star』가 “입양된 나라”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잭슨이 원래 지역적으로 덴마크 식민지 출생이며 혈통적으로도 백인국가 오스트레일리아의 국민경계 내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국가의 성원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식 인종격리가 설리번에 의해 잭슨과의 타이틀전을 거부하는 명분이 되자 오스트레일리아의 언론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실례로 『Referee』는 미국의 외국인에 대한 국가적 배타성과 인종주의가 잭슨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⁶⁷

이렇듯 그를 둘러싼 초국가적 관계망을 고려한다면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강도 높은 인종차별이 잭슨으로 하여금 미국 흑인의 ‘인종적 대표자’의 역할을 받아들일도록 만들지는 못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이 그를 입양했다고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귀속감을 더욱 강화시켰기 때문이었다. 잭슨은 미국 도착 후 가진 최초의 공식 행사에서부터 자신을 성공을 찾아온 “낯선 나라의 이방인”이자 “경기를 통해 (경제

“Champion Peter Jackson,” *Dead Bird* (July 20, 1889), p. 7.

64) “The Australian Wins,” *Newcastle Morning Herald and Miners’ Advocate* (November 12, 1889), p. 5.

65) “Sport,” *Dead Bird* (November 30, 1889), p. 6.

66) “Peter Jackson,” *Australian Star* (May 31, 1892), p. 8.

67) “Peter Jackson Arrives in SF,” *Referee* (July 31, 1918), p. 7.

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미국을 떠나 세계의 다른 곳에 머물게 될” 임시 체류자로서 규정하였던 것이다.⁶⁸⁾

이방인이자 임시체류자로서 잭슨은 자신의 정체성의 기원이 언제가는 돌아갈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것이 잭슨의 디아스포라 정체성이었던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잭슨은 1889년의 맥아올리페와의 경기에서 오스트레일리아를 상징하는 연푸른색 스타킹을 착용하였고 이후에도 캥거루가 그려진 흰색과 하늘색이 섞인 경기복을 자주 입었다. 영국 방문 시 경기에서도 자국을 상징하는 사자가 그려진 컬러를 사용하는 상대 스미스에 맞서 잭슨은 오스트레일리아를 상징하는 캥거루와 에뮤(emu)가 받쳐 든 방패형 국가 상징(the Australian coat of arms)이 중앙에 그려진 하늘색 컬러(color)를⁶⁹⁾ 사용하며 자신의 국가 정체성을 과시하였다. 이렇듯 잭슨의 초국가적 경험은 흑인의 정체성을 강화하기보다는 교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며 그는 흑인의 대변자보다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변자로서 자신의 형상을 만들었다.⁷⁰⁾ 그리고 미국의 복싱팬과 언론은 잭슨에게 ‘검둥이(nigger)’ 나 ‘니그로(Negro)’ 와 같은 아프리카 기원을 강조하며 동시에 미국의 노예제 역사를 상기시키는 비칭을 결부시키지 않음으로써 잭슨의 정체성 만들기에 화답했던 것이다.

따라서 잭슨과 미국 흑인들과 관계는 단순하게 일반화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실제로 잭슨은 줄곧 백인 지역에서 거주했고 흑인사회와의 교류는 1890년 이후 더욱 제한되었다. 이를 확인시켜주듯 스포츠 편집인 베빌 포더(Neville Forder)는 잭슨과 흑인 챔피언 고드프리와의 경기 이후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피터 잭슨은 사자와 같았고 (백인들 사이에서) 승리한 백인처럼 대우받았다. 흑인지구(coontown)가 그를 영웅으로 여겼지만 실은 피터는 피부색이 같은 멜론과 닭고기를 먹는 사람들과는 전혀 어울린 적이 없었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인이며 신사적인 복서였다. 특히 잭슨은 그의 태도로 인해 백인들에게서 존경을 받았다.”⁷¹⁾

실제로 잭슨과 미국 흑인과의 거리감은 1890년 솔트 레이트 시티(Salt

68) *Ibid.*

69) 컬러는 복싱 경기중 복서가 자신의 코너에 매어두는 자신을 상징한 손수건 크기의 깃발이다.

70) Petersen, Peter Jackson, pp. 69, 53, 101.

71) Petersen, *Peter Jackson*, p. 117.

Lake City) 방문 중 행한 인터뷰에서 “설리번이 아일랜드인의 우상인 것처럼 당신도 흑인들의 우상인가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흑인의 우상이라고요? 아뇨. 왜 제가 그들의 우상이어야 하죠? 전 그들과 교류가 없고 심지어 거의 만나지도 않아요. 그들은 거리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것 외에는 저를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아요. 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고요.”⁷²⁾ 이렇듯 잭슨은 미국 흑인의 자신에 대한 과열된 감정이입이 절제된 계급적 윤리를 따르는 이방인으로 자신을 형상화하여 인종차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 부합되지 않다고 여겼다. 국가적 정체성과 계급적 정체성이 백인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흑인의 인종정체성 역시 약화시켰던 것이다.

주도적으로 계급과 국가의 경계를 활용하여 자신을 둘러싼 인종경계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에서 잭슨은 주체적 행위력의 보유자였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저항과 순응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를 사용하여 규정할 수는 없었다. 잭슨은 스스로를 이방인 신사로 구성함으로써 백인경계를 혼란시켰다는 점에서는 능동적이었지만 자신을 국외자로 설정하고 미국의 인종구조에 대해 직접적 문제 제기보다는 회피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순응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계급과 국가의 경계를 활용하여 인종위계를 벗어나기 위한 탈인종적인 복합적 정체성을 만든 것은 저항성과 더불어 순응성을 높였다. 그의 저항적 행위력과 그의 행위 속에 내재한 순응성이 강화시키는 구조적 제약은 지속적으로 충돌했던 것이다. 보통의 흑인이 할 수 없었던 과시적 소비를 통해 계급 유동성의 상징을 자처하고 인종예외에 도전하면서 자신이 출생한 남부의 인종차별의 역사로부터 스스로를 절연시키려 했던 존슨과 이와 달리 계급적 가치의 내재화를 통해 사회적 상승을 이루고 국외자로 자신을 규정함으로써 미국의(남부의) 인종차별 역사로부터 절연을 시도했던 잭슨 모두는 한 개인으로서 인종차별 사회에서 자신을 부분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었지만 하나의 인종집단을 향한 차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를 보여주듯이 미국에서의 활동이 끝나갈 즈음의 사건들은 사회적 경계들을 활용하여 인종경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잭슨의 행위력이 여전히 과소평가 될 수 없다는 것과 동시에 그의 주체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인종주의라는 구조적 제약을 완전히 회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72) “A Talk with Jackson,” *Salt Lake Tribune* (April 1, 1893), p. 6.

V. 계급, 국경, 남성성이 작용하는 복합적 정체성 만들기 인종구조의 제약

피부색이 강제하는 사회적 제약을 받더라도 한 복서가 보여주는 남성적 자질이 그의 주체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복싱이라는 문화기관은 계급과 국민과 같은 사회적 경계가 인종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는 여건도 제공하였다. 잭슨이 이렇듯 다양한 사회적 경계를 활용하여 인종 경계를 의도적으로 교란시킨 데에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었다. 그것은 컬러 라인을 극복하고 설리번과의 타이틀 경기를 성사시키는 것이었고 나아가 흑인으로서 당대 미국의 육체적 남성성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헤비급 챔피언이 되는 것이었다.

1890년에 잭슨이 유럽 순회활동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무렵 그와의 경기를 거부하는 설리번을 향한 여론의 압력은 배가되고 있었다. 진정한 남성의 상징이 흑인 복서가 될 수 있다는 여론은 백인의 육체적·정신적 우월성에 대한 오랜 믿음을 동요시키고 있었다. 여론의 압력으로 인해 설리번이 잭슨과의 대전 의사를 밝히고도 협상에 소극적이지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가령 한 신문은 “설리번은 잭슨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가진 기사에서 터무니없는 고액의 대전료를 요구하며 협상을 교착상태로 몰고 가는 설리번을 비판하였다.⁷³⁾

그러나 설리번에게는 다행스럽게도 1890년 6월에 잭슨 일행과 행인 간의 시비로 인한 폭행 사태가 발생하여 평판의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한 잭슨은 잠시간 오스트레일리아로 도피성 귀국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시범 경기를 위해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한 설리번과 잭슨은 처음으로 1891년 6월 26일에 복싱평론가 W. W. 나우턴(W. W. Naughton)의 소개로 대면하게 되는데 그 직후 행해진 설리번의 인터뷰는 잭슨의 오랜 노력이 최종적으로 수포로 돌아갔음을 알려주었다. “잭슨과의 대화는 예상보다 즐거웠습니다. 이번이 첫 대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검둥이(nigger)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요. 신은(흑인인) 그가 백인처럼 강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피부색을 바꿀 수밖에 없지요.”⁷⁴⁾

73) *St. Louis Post-Dispatch* (May 19, 1890), p. 9.

74) *San Francisco Chronicle* (June 27, 1891), p. 10.

1890년 12월에 잭슨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샌프란시스코에 스포츠 살롱을 열었다. 그리고 1891년 5월 21일에 떠오르는 신성으로 이후 복싱사에 큰 획을 긋는 챔피언이 되는 제임스 J. 코르벳(James J. Corbett)과 대결하였다. 잭슨이 자신의 국가적 정체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백색과 푸른색이 섞인 유니폼을 입고 치른 이 경기에서 양 선수는 4시간 이상 혈투를 벌였으며 61라운드가 끝난 후 양측의 합의로 경기가 중단되었다. 이 경기는 여전히 그를 강력한 챔피언 도전자로 여겨지도록 만들었다.

1892년에 잭슨은 다시 영국을 방문하여 자신을 환대하는 영국의 상류층 인사들과 인연을 이어갔다. 잭슨은 전영체육클럽의 후원으로 1892년 5월 30일에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으로 초대 영연방 헤비급 챔피언인 프랭크 슬라빈과 경기를 가져 10라운드에 KO로 승리하였다. 이 경기를 통해 오스트레일리아의 스포츠 팬들과 잭슨과의 결합은 더욱 공고해졌다. 잭슨이 승리한 “황홀한 밤”을 기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표적 스포츠 신문은 챔피언과 도전자 모두가 동향인으로 영연방 내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부상을 상징하는 이 경기의 승자로서 잭슨을 선호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스포츠 애호가들이 잭슨을 더 적합한 자국의 대표복서로 여기는 한 인종 경계는 약화되고 잭슨과의 일체감은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⁷⁵⁾

그러한 가운데 1892년 9월 7일에 복싱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코르벳이 뉴올리언스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설리번을 누르고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던 것이다. 남부에서 흑인은 복싱 경기장에 입장할 수 없었음에도 잭슨은 예외적으로 참석이 허락되었다. 잭슨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챔피언이 된 코르벳과 재대결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인들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자신의 복합적 정체성을 다시금 드러냈다. “저는 외국인이며 유색인 남성입니다. 그러기에 미국의 대중과 언론에 제가 도전자로서 적합한지 최종적 판단을 맡기려 합니다.” 이렇듯 정중한 도전사를 통해 자신을 외국인 신사로 규정한 잭슨은 “최고인 자가 승리한다(May the best man win)”는 복싱의 오랜 구호를 상기시키면서 남성들 간의 동등한 경쟁을 중시하는 스포츠로서 복싱의 전통을 강조함으로써 인종경계의 약화를 시도하였다. 그는 또한 코르벳이 자신보다 현저히 열등한 칼레이 미첼(Charley Mitchell)을 첫 도전자로 선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의 남성적

75) “Peter Jackson,” *Referee* (January 12, 1898), p. 1.

용기와 스포츠 정신의 부족을 적시하였다.⁷⁶⁾ 계급적 덕목, 이방인으로서의 신분, 남성의 동류의식을 활용하여 인종경계를 허물어뜨리려는 그의 노력은 많은 성원을 받았지만 코르벳은 잭슨과의 경기 가능성을 명확히 부정하였다.⁷⁷⁾

타이틀전의 성사가 어려워지자 잭슨은 복싱교습에 전념하였고 매니저 데이비스의 권유를 받아들여 당대의 명성을 가진 복서들이 그랬던 것처럼 연극에 출연하였다. 잭슨은 1993년 2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초연한 『Uncle Tom's Cabin』에 출연하였는데 잉클 톰은 원작자인 스토우 부인(Harriet Beecher Stowe)이 백인의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어넌 극중 인물로 노예 소유주의 부당한 대우에도 이를 묵묵히 인내하는 늙은 흑인 노예였다. 따라서 수잔 클락(Susan Clark)과 같은 연구자들은 잭슨이 이 순종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백인사회가 잭슨의 인종적 위협을 봉쇄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평가하였다.⁷⁸⁾ 그러나 이 연극을 관람한 백인들이 과연 잭슨을 인종 위협으로 여겼는지 혹은 그가 제기하는 인종위협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보려하였는지는 단언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실제 잭슨이 만일 “유색인 검투사라는 연극에 출연했다면” “더 적합했을” 것이라 주장한 『National Police Gazette』의 기사처럼 그의 체격과 평판은 배역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 쉽게 인지되었다.⁷⁹⁾ 그러기에 『San Francisco Examiner』는 “피터 잭슨씨의 톰 아저씨로의 변신은 의심할 바 없이 지적 혼란을 야기한다” 라고 조롱하였다.⁸⁰⁾ 이렇듯 백인들은 잭슨이 단순히 (부적절한) 배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San Francisco Chronicle』에 의하면 초연 시 관객들은 인종 위협의 소멸을 구경하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가 (어울리지 않는) 설교를 해도 출석할” 열혈 지지자들과 잭슨이 어떻게 이런 배역을 할 수 있을까 호기심을 가진 이들이었다. 이들 모두는 그가 실제로는 배역과 상이한 인물로 단지 역할 수행(performance)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76) “Big Peter on Parade,” *Salt Lake City Herald* (December 15, 1892), p. 6.

77) *Referee* (January 25, 1893), p. 10.

78) Susan F. Clark, “Up against the Ropes; Peter Jackson as ‘Uncle Tom’ in America,” *The Drama Review* 44-1(2000), p. 157

79) *National Police Gazette* (March 4, 1893), p. 11.

80) *San Francisco Examiner* (February 26, 1893), p. 6.

관객들이었고 도리어 순종적이지 않은 색다른 잉클 톱을 기대하였다. 가령 연극 중 노예시장에서 잭슨이 학대받자 분노한 한 관객은 이렇게 외쳤다. “피터, 그놈 목에다 한 방 날려주라고!” 이렇듯 연극에서 잭슨이 완전한 복종을 보여주었더라도 그의 순응은 관객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극단은 색다른 잉클 톱을 보고자 하는 관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하였다. 오클랜드(Oakland)에서의 대형 공연을 앞두고 소도시 연습 공연에서 수익이 저조하자 극단은 관중이 잭슨의 호전적 모습과 “유혈”을 원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잭슨이 원하는 바와 같이 1막과 2막 사이에 토머스 존슨(Thomas Johnson)과 복싱 시범경기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오클랜드 공연의 대성공은 연극 홍보의 중점이 잭슨의 연습경기에 주어지도록 만들었는데⁸¹⁾ 이후 대련 상대는 유명 복서 조 초인스키(Joe Choynski)로 교체되어 마치 일급 복싱 경기를 방불케 되었다. 이는 복싱 경기가 극을 “영광으로 만들고 있다”는 연극평론가들의 불평을 야기하였다.⁸²⁾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잉클 톱 연극은 백인들이 잭슨의 부정할 수 없는 남성성을 인식하고 있는 한 그의 인종 위협을 봉쇄하기 위한 기획이 될 수 없었다. 실제로 이 연극 속 잭슨의 모습은 순응 속에 저항이 중첩된 그의 삶의 축소판과 같은 것이었다.

잭슨의 배역이 그의 남성성을 제거할 수 없었다는 점은 이후에도 코르벳으로 하여금 잭슨과 싸우도록 요구하는 여론의 압력이 컸다는 것에서 잘 드러났다. 여론을 견딜 수 없었던 코르벳은 잭슨과 1893년 7월 11일에 메이슨-딕슨 선 이북의 가장 많은 대전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클럽에서 1894년 6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경기를 가지기로 합의하였다.⁸³⁾

1994년 3월에 예정된 경기를 앞두고 양자를 검진했던 의사 존 윌슨 깁스(John Wilson Gibbs)는 잭슨의 신체적 우위를 자신하였다. 그는 잭슨이 “더 우수한 선수”라고 평가하며 검진결과에 의거하며 흑인 복서가 북부 공격에 약하다 등의 인종적 통념은 모두 허황된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오

81) *San Francisco Examiner* (February 23, 1893), p. 4.

82) Susan F. Clark, Peter Jackson as “Uncle Tom” in America, p. 173.

83) “Sandy Griswold Chat with the Boxers,” *Omaha Daily Bee* (July 16, 1893), p. 16.

랜 링 위의 인종 편견은 잭슨으로 인해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그의 부정할 수 없는 남성성은 인종질서를 계속 교란했던 것이다.⁸⁴⁾

그러나 경기 장소를 둘러싼 협상은 난항에 봉착하였다. 전영체육클럽이 잭슨을 위해 경기 주최를 제안하였으나 코르벳은 잭슨을 “돈이 아닌 명예를 위해 싸우는 남성”으로 존중하면서도 협약과 달리 남부의 플로리다를 경기 장소로 고집하였다. 물론 남부의 극심한 인종차별을 경험한 바 있는 잭슨으로 하여금 자진하여 경기를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⁸⁵⁾ 코르벳이 중립지 영국 대신 남부에서 대전하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결국 경기는 유산되었다. 잭슨이 그의 전성기에 마지막으로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었던 기회는 물거품이 된 것이었다. “나는 남성으로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라고 항의한 잭슨은 탈인종적 남성성에 호소하며 복싱계에 존재하는 인종경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⁸⁶⁾ 잭슨의 타이틀 도전의 최종적 실패는 선수 개인의 행위력이 인종구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 내는 지속적인 균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개인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의 존재를 상징하였다.⁸⁷⁾

목적의식을 상실한 잭슨의 선수 경력은 점차 내리막으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여전히 “영리하고 겸손한 복서”이자 “위대하고 과학적인 복서”로 여겨지는 잭슨이었지만 1898년 3월에 후일 잭슨과 세기의 대결을 벌이게 되는 ‘백인의 희망(white hope)’ 짐 제프리스(Jim Jeffries)와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그의 선수 경력은 끝나게 되었다. 경기력은 실망스러웠으나 미국 기사를 인용하여 경기장 분위기를 전한 오스트레일리아 신문에 의하면 여전히 잭슨은 팬들 사이의 “최고인 인기인”이었다.⁸⁸⁾

굴욕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레일리아의 팬과 신문은 여전히 “뛰어난 기록과 공정하고 명예로운 태도”를 가진 복서로서 잭슨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현하였다.⁸⁹⁾ 『Referee』는 잭슨을 “피터대제”로 칭하며 이제

84) “Corbett and Jackson,” *Roanoke Times* (March 25, 1894), p. 6.

85) “America, Jackson and Corbett,” *Freeman’s Journal* (September 29, 1894), p. 7.

86) *Referee* (October 10, 1894), p. 6.

87) Susan Birrel, “Racial Relations Theories and Sport: Suggestions for a More Critical Analysis,” *Sociology of Sport Journal*, 6(1989), p. 213.

88) “Peter Jackson,” *Colac Herald* (June 3, 1898) p. 8.

는 미국에서의 경력을 정리해야 하는 그를 위해 시드니아마추어체육클럽(Sydney Amateur Athletic Club)의 W. F. 코르벳(W. F. Corbett)이 작성한 “오스트레일리아와 당신의 고향 시드니의 사람들이 가진 번치 않는 존경심”을 보여주는 위로의 편지를 제재하였는데 잭슨은 자신의 인종경계를 허물기 위한 오랜 노력의 보상으로 여겨지는 이 편지에 큰 기쁨을 나타냈다.⁹⁰⁾

1901년 갑작스런 투병 끝에 잭슨이 사망한 후에도 이러한 평가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의 6주기를 맞아 게재된 『Referee』의 기사는 잭슨을 “복싱계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명예를 드높인” 그리고 그의 앞을 가로막은 모든 상대들을 무릎 꿇린 “위대한 유색인종 복서”로 기억하며 “설리번과 코르벳이 컬러 라인 뒤에 몸을 숨기지 않았더라면 잭슨이 그들의 머리 가죽을 전리품으로 획득했을 것이다 ‘고 단언하였다. 나아가 기사는 잭슨을 “명예로운 남성”이자 “신사”로서 피부색만 다를 뿐 “코난 도일의 『로드니 스톤(Rodney Stone)』 속 주인공의 화신”과 같았다고 칭송하였다.⁹¹⁾ 이렇듯 잭슨의 인종위계를 허물기 위한 행위력은 그의 사후에도 초국가적 인종경계에 균열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잭슨의 사후 게재된 시카고의 언론인 루 하우스맨(Lou Houseman)을 인용한 『National Police Gazette』의 기사가 보여주듯이 인종주의 사회를 향한 그의 용전에는 적지 않은 보상이 있었으나 보다 인종주의적인 미국에서는 그 한계 역시 명확히 존재하였다. “뛰어난 기술과 경기 장악력에 더하여 그는 흑인 복서들이 너무 자주 결여했던 인내를 보유했다....그의 선수 활동 기간 중 피터는 적과 친구 모두의 존경을 받았다.”⁹²⁾ 잭슨은 한 개인으로서는 존경의 대상이었으나 그의 인종은 여전히 편파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인종주의 구조는 개인의 행위력의 작용으로 만들어진 균열을 내포하면서도 재생산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잭슨은 단순히 순응적인 복서가 아니라 선수 경력 내내 자신을 둘러싼 인종경계의 혼란을 야기한 인물이었다. 계급, 국

89) “Peter Jackson’s Defeat,” *Daily Telegraph* (April 20, 1898), p. 10.

90) “Peter Jackson,” *Referee* (December 23, 1896), p. 6.

91) “Peter Jackson,” *Referee* (July 17, 1907), p. 7.

92) *National Police Gazette* (June 1, 1901), p. 10.

가, 젠더의 경계를 활용하여 인종경계를 약화시키려 했던 잭슨의 시도는 그의 주체성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정체성의 다변화가 순응과 저항의 기회를 모두 제공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잭슨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순응과 저항은 주체성의 부재와 존재로 구획되는 것이 아니며 그 경계는 자주 불분명한 것이었다. 구조적 제약이 상존하는 가운데 완전한 저항이 있을 수 없듯이 동시에 구조적 제약이 상존하는 한 완벽한 순응이란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VI. 결론

백인 중간계급의 가치를 수용하고 인종예의에 순응했던 복서 피터 잭슨은 범접할 수 없는 육체적 남성성을 과시하는 인종적 위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길들여진 흑인 남성의 전형을 보여주는 주체적 행위력을 결여한 흑인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경기에서의 승리가 상대에 대한 완전한 정복을 상징적으로 실현하는 복싱은 개인의 우월성을 극대화하는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인종지배가 항상 시험과 도전에 직면하는 문화공간이었다. 이러한 복싱의 특성상 한 복서가 인종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철저히 타율적 존재였다는 점을 상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었다. 더구나 잭슨은 여러 사회적 경계를 활용하여 인종 경계를 약화시키려고 시도했던 능동적인 존재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교차성연구의 이론을 통해 본 그의 선수 경력은 잭슨이 계급경계, 국민경계, 젠더경계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 달성에 방해가 되는 인종경계를 약화시키려 한 주체였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인종경계를 약화시키는 노력은 정체성의 복합화와 탈인종적 정체성의 강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인종본질주의적 해석의 문제점 역시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잭슨의 경력에 대한 고찰은 정체성의 다변화가 촉진시키는 순응 속에도 자주 저항이 내재하여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저항적 행위가 또 다른 순응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개인의 행위가 저항과 순응의 이분법 속에서는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구조적 제약이 상존하는 가운데 완전한 저항이 있을 수 없듯이 동시에 구조적 제약이 상존하는 한 완벽한 순응이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인천대 역사교육과, 부교수, jukimah@inu.ac.kr

주제어(Key Words)

피터 잭슨(Peter Jackson), 복싱(Boxing), 교차성연구(Intersectionality Studies), 정체성(Identities), 인종(Race)

투고일: 2024.4.25. 심사일: 2024.5.11. 게재확정일: 2024.5.13.

<국문 초록>

**다양한 사회적 경계와 흑인의 인종적 정체성:
피터 잭슨(Peter Jackson)의 복합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김정옥

백인 중간계급의 가치를 수용하고 인종예외에 순응했던 복서 피터 잭슨은 오랫동안 길들여진 흑인 남성의 전형을 보여주는 주체적 행위력을 결여한 흑인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잭슨은 여러 사회적 경계를 활용하여 인종 경계를 약화시키려고 시도했던 능동적인 주체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평가는 불합리하였다. 교차성연구의 이론을 통해 본 그의 선수 경력은 잭슨이 계급경계, 국민경계, 젠더경계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 달성에 방해가 되는 인종경계를 약화시키려 한 주체였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인종경계를 약화시키는 노력은 정체성의 복합화와 탈인종적 정체성의 강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인종본질주의적 해석의 문제점 역시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잭슨의 경력에 대한 고찰은 정체성의 다변화가 촉진시키는 순응 속에 자주 저항이 내재하여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저항적 행위가 또 다른 순응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개인의 행위가 저항과 순응의 이분법 속에서는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구조적 제약이 상존하는 가운데 완전한 저항이 있을 수 없듯이 동시에 구조적 제약이 상존하는 한 완벽한 순응이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Abstract>

**Diverse Social Boundaries and Black Identity:
The Complex Identity of Peter Jackson**

Kim, Jeonguk

The boxer Peter Jackson(1861-1901) embraced the values of the white middle classes and complied with racial etiquette, and was conventionally regarded as a compliant black man who lacked agency and embodied the well-tamed archetype of black masculinity. However, interacting diverse social boundaries and weakening racial boundaries and hierarchies, Jackson was an active cultural agent. An analysis of his athletic career through the lens of intersectionality studies theory, confirms that Jackson actively sought to mitigate racial boundaries for individual advancement by intersecting class, national, and gender boundaries with racial ones. His efforts to weaken racial boundaries were also indicative of the shortcomings of racial essentialist interpretations, as they involved the diversification of identities and the strengthening of post-racial identities.

Further, reflections on Jackson's career also reveal that compliance fostered by identity diversification, provided new opportunities for resistance that also accompanied compliance. Accordingly, in Jackson's career, compliance and resistance cannot be understood as a dichotomy. As complete resistance cannot exist in the presence of structural constraints, neither can perfect compliance exist as long as structural constraints still persist.

참고 문헌

1. 사료

Appeal
Australian Star
Australian Town and Country Journal
Cincinnati Commercial Gazette
Colac Herald
Daily Alta California
Daily Evening Bulletin
Daily Telegraph
Dead Bird
Evening Journal
Evening News
Evening World
Freeman's Journal
Freeman's Journal and Daily Commercial Advertiser
Hawaiian gazette
Indianapolis Freeman
Los Angeles Daily Herald
National Police Gazette
Newcastle Morning Herald and Miners' Advocate
New York Age
New York Evening World
Omaha Daily Bee
Pittsburgh Dispatch
Referee
Roanoke Times
Salt Lake Herald
Salt Lake Tribune
San Francisco Chronicle
San Francisco Examiner
Seattle Post-Intelligencer

Sportsman

St. Louis Post-Dispatch

Tasmanian

Victorian Express

Warwick Examiner and Times

Washington Bee

Wisconsin State Journal

Corbett, James J., *The Roar of the Crowd: The True Tale of the Rise and Fall of a Champion* (New York: G. P. Putnam's Sons, 1925).

Johnson, James Weldon, *Along the Way: The Autobiography of James Weldon Johnson* (1933; reprint, New York: Da Capo Press, 2000).

Johnson, James Weldon, *Black Manhattan* (New York: Da Capo Press, 1991).

2. 단행본

Gems, Gerald R. and Gertrude Pfister, *Understanding American Sports* (New York: Routledge, 2009).

Hietala, Thomas R., *The Fight of Century: Jack Johnson, Joe Louis, and the Struggle for Racial Equality* (Armonk: M. E. Sharpe, 2004).

Kidd, Thomas S., *American History* (Nashville: B&H Academic, 2019).

McCaffrey, Lawrence J., "Diaspora Comparisons and Irish-American Uniqueness," in *New Perspectives on the Irish Diaspora*, ed. Charles Fanning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2000).

McCaffrey, Lawrence J., *The Irish Catholic Diaspora in America*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97).

Petersen, Bob, *Peter Jackson: A Biography of the Australian Heavyweight Champion, 1860-1901* (Jefferson: McFarland & Company, 2005).

Polley, Martin, *Moving the Goalpost: A History of Sports and Society since 1945* (London: Routledge, 1998).

Runstedtler, Theresa, *Jack Johnson, Rebel Sojourner: Boxing in the Shadow of the Global Color Line*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3).

- Sammons, Jeffrey T., *Beyond the Ring: The Role of Boxing in American Society* (Urbana Champaig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0).
- Ward, Geoffrey C., *Unforgivable Blackness: The Rise and Fall of Jack Johnson* (New York: Vintage, 2006).
- Wiggins, David K., *Glory Bound: Black Athletes in a White America*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1997).
- Wiggins, David K. and Patrick B. Miller, *The Unlevel Playground: The Documentary History of the African Experience in Sport* (Urbana: Illinois University Press, 2003).

3. 논문

- Birrell, Susan, "Racial Relations Theories and Sport: Suggestions for a More Critical Analysis," *Sociology of Sport Journal*, 6(1989), pp. 212-227.
- Clark, Susan F., "Up against the Ropes: Peter Jackson as 'Uncle Tom' in America," *The Drama Review*, 44-1(2000), pp. 157-182.
- Marqusee, Mike, "Sport and Stereotype: From Role Model to Muhammad Ali." *Race & Class*, 36-4(1995), pp. 1-31.